

2023. 11. 2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예술지원실

| | | |
|---------|---|--------------|
| 홍보마케팅팀장 | 이주영 | 02-3290-7061 |
| 홍보마케팅팀 | 이준걸 | 02-3290-7065 |
| 융합예술팀 | 권해정 | 02-2676-0093 |
| 관련 누리집 | http://www.sfac.or.kr | |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 10쪽

백남준부터 첨단기술 기반 신작까지

「문화역서울284」 본관서 열리는 동시대 융합예술 전시 성황

- 서울문화재단, 문화역서울284 본관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내달 13일까지 무료 전시
- 서울에서 처음 만나는 백남준 '시스틴 채플'과 어우러진 국내외 융합예술 신작 18팀 23작품
- 디지털감성문화도시 핵심과제 '예술·기술 융복합화' 따라 추진되는 국제 규모 페스티벌
- 전년대비 확대된 규모에 일 방문 1천 명 이상, 외국인 관람객 비중도 10% 넘는 등 호응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뉴노멀 시대, 첨단기술 기반 새로운 예술창작의 현주소를 제시하는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을 오는 12월 13일(수)까지 문화역서울284 본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 올해 『달로 가는 정거장』을 주제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은 2010년 '다빈치 아이디어'로 시작한 역대 최대 규모의 융합예술 축제다. 특히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력으로 문화역서울284 본관에서 축제를 진행, 1925년 지어져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교류 관문이었던 구 서울역사가 변모한 특별한 공간을 무대로 이전보다 확대된 규모와 기간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 또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작품이 많아져 진입장벽을 낮춘 올해의 전시는 융합예술분야 국내외 18팀의 23개 작품을 총망라하여 문화역서울284 본관 1층과 2층의 공간 특성을 고려해 배치했다. 미디어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1988년도 초기작인 ‘토끼와 달’과 1993년도 작품 2점이 대부분 올해 제작된 국내외 신작들과 대비를 이룬다. 특히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최고상(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시스틴 채플’이 서울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시는 ‘환승시간’, ‘우리, 여행자들’, ‘내일 도착’ 등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 ‘환승시간’에서는 동시대 융합예술의 역사적 기원과 ‘지금’의 상황이 펼쳐진다.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등 관람객은 기술이 가져온 변화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21세기 기술과 예술이 질문하는 융·복합 시공간으로의 환승을 경험한다. 참여작가는 ▲백남준 ▲사일로랩 ▲허먼 콜겐(Herman Kolgen, 캐나다) ▲서수진/카를로 코린스키(Carlo Korinsky, 독일) ▲류필립 ▲루이-필립 롱도(Louis-Philippe Rondeau, 캐나다) ▲룸톤 ▲추미림 ▲박소영 ▲김치앤칩스 등이다.

○ 두 번째 섹션 ‘우리, 여행자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여정을 각자 또는 공동의 풍경으로 제시한다. 인류세와 게임적 의상, 아날로그 기술과 과거를 예측하는 미래 기술의 공존, 상호 접촉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다. 참여작가는 ▲올리 소렌슨(Oli Sorenson, 캐나다) ▲트리스탄 슈츠(Tristan Schulze, 독일) ▲페 랑(Pe Lang, 스위스) ▲알렉스 베르하스트(Alex Verhaest, 벨기에) ▲장지연 등이다.

○ 세 번째 섹션 ‘내일 도착’은 1990년에 제작된 역사적 작업과 2023년 동시대성을 체감해 제작한 작업물들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

반으로 제작된 작품에서 새로운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미래 시스템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참여작가는 ▲미셸 브레/에드몽 쿠쇼(Michel Bret/Edmond Couchot, 프랑스) ▲류필립 ▲G.MAP(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임형섭/장운영/김호빈/김소진 ▲상희 등이다.

- 언폴드엑스는 오늘날 융합예술분야 생태계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국제 교류 플랫폼이다. 디지털감성문화도시 서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추진 중인 이번 전시는 제작지원 작품이 국제 수상을 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포함 일평균 1천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언폴드엑스는 국내외 융합예술분야를 선도하는 다수의 기관과 협업해 진행된다. 올해는 ZKM(독일), HEK(스위스), ELEKTRA(캐나다), 국립현대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아트센터 나비, 유니버설로봇 등과 협업했다.
- 또한 이번에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새로 선보인 상희의 인터랙티브 VR 작품 ‘원룸 바벨’은 2022년 언폴드엑스 창·제작 지원으로 제작된 작업이다. 이 작품은 2023년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베네치아 영화제 이머시브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받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 내년에는 국내외 협력기관과 전시작품을 교류할 예정이다. 상반기 몬트리올 일렉트라와 협업해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International Digital Art Biennial, BIAN)에 참여한다. 하반기에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기획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주말마다 3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중 외국인 관람객은 10%내외이며, 지난해보다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융합예술작품이 많아져 관람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을 받는다.

-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언폴드엑스 누리집(unfoldx.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 문의 02-2676-0093)

-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올해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융합예술 축제의 장으로 미래예술을 선도해 서울을 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며,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전시를 무료로 관람한 시민과 관광객이 서울을 디지털감성문화도시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개요 및 포스터

붙임2. 현장사진

□ **페스티벌 개요**

- 행사명: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
- 일 시: 2023. 11. 10.(금) ~ 12. 13.(수)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 개막식: 11.10.(금) 17:00 (*개막일은 오후 3시부터 전시관람 가능)
- 장 소: 문화역서울284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서울역(본옥) 문화역서울284)
- 프로그램: 국내외 융합예술 분야 작품전시, 융복합 공연, 특별강연 및 아티스트 토크 등
-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 협 력: [국내]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아트센터나비, 울산시립미술관, 유니버설로봇,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G.MAP),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해외] (독일)ZKM, (스위스)HEK, (캐나다)ELEKTRA
- 관람료: 무료
- 홈페이지: <http://unfoldx.org>

□ **포스터**

| | |
|---|---|
|  | <p><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 포스터</p> |
|---|---|



〈제 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을 통해 서울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백남준의 ‘시스틴 채플’



〈제 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이 열리는 문화역서울284 본관 중앙홀에 전시된 사일로랩의 ‘시유(時有)’를 관람하는 시민들.



지난 10일 문화역서울284 본관에서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이 개막했다.

기술은 언제나 다른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등장했다. 20세기 초 모더니즘의 선언 아래 도시 공간과의 이동을 신기술을 통해 목표했다면, 2023년 인류를 둘러싼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여행지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시공을 뛰어넘어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해왔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달로 가는 정거장》은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방법론을 질의하는 동시대 예술가들, 국내외 여러 기관 등을 연결한다. “달로 가는 정거장”은 1925년 문을 연 유라시아 연결 철도의 출발지였던 문화유산 (구)서울역사에서 다가오는 미래에 관해 이야기한다. 과거와 미래, 연결과 이동, 다변화된 기술 기반 생활의 시스템을 내다본다. 《달로 가는 정거장》은 예술가들의 VR, 키네틱, 접촉, 인공지능, 공명 스피커 등을 경유한다. 전시를 통해 기차가 출발/도착했던 각 방은 여정의 모티브를 담은 그 자체로의 루트가 된다. 이때 ‘루트’라 하는 것은 미술사학자 리사 그린버그가 글 「미로로서의 전시」에서 언급했듯, 전시가 개별 작품을 묶는 주제를 담은 매개물만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로 가는 정거장》은 세 가지 주제를 연결한다. 첫째, 기술이 도래하게 하는 새로운 시간의 감각이다. 둘째,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우리’, 공동체의 감각이다. 셋째, 미래 세대와 기술의 전망이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달로 가는 정거장》은 기술과 예술의 접촉, 작가-관객-기관의 협력을 통한 예술 플랫폼을 지향한다. 작가의 작업을 경험하며 신체, 미래,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탐구한다.

이러한 세 개의 주제는 동시대 예술 조건이자 태도로서 다음의 게이트를 구성한다. ‘Gate 1. 환승시간’은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과 좌우 1층, 서측복도를 아우른다. 서울역 광장, 밖의 소리가 투명하게 들리는 3등 대합실에서부터, 기차와 열차 시간표, 문화역서울284에 걸린 파말바(시계)를 관망하던 역장사무실, 귀빈실과 여인들만이 드나들었던 특별로 치장한 부인대합실, 귀빈실에 이르기까지 이 공간 안에는 기술이 시간의 감각을 다루는 방법론을 보여주는 작업들로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승시간 - 인 / 아웃》 섹션에서는 동시대 융합예술의 역사적 기원과 ‘지금’의 상황을 펼친다. 기술 발전은 이동 시간, 노동 시간 등 시간의 단축뿐 아니라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인식론 자체를 탈바꿈화했다.

‘Gate 2. 우리, 여행자들’은 기차 출발을 기다리고 그 옆이 ‘임의접속’ 하듯 유연히 앉게 된 어떤 이웃과 타자들을 생각하며 기획되었다. ‘어떤 기차를 타고 누구 옆자리에 앉아 어디로 가는가?’가 질문의 시작되었다. 수십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한국 최초의 서양식 식당이었던 그릴이 있고 그 안의 음식들을 만들고 통신(transfer)하던 철체 운반실, 창문이 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명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인종, 성차별, 도시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떤 복수의 집합체이자 공통체로 묶이고 분산되는가를 이야기한다. <우리, 여행자들>은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통해 공동체, 사회, 다른 시간대와 자연과의 공존/긴장을 상상하는, 다른 방식의 ‘인터랙션’, 상호 접촉을 질문한다. 흥미롭게도 ‘Gate 2. 우리, 여행자들’ 섹션에는 독일의 ZKM, 스위스의 HEK, 캐나다 엘렉트라 등 서울문화재단과 협력을 맺은 해외 융합예술 기관과 대화 후 초대된 작업들이 놓여있다.

‘Gate 3. 내일 도착’은 문화역서울284에서 가장 당대적인 물질성을 지닌 벽과 바닥, 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에 제작된 역사적 작업부터 작가들은 각기 다른 말하기의 방법론을 통해 그들 작업에 위치한 기술 감각을 새롭게 공통의 감각으로 질문한다. 관객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작업해 나가는 작가들의 작업 앞에서 미래로 향할 새로운 예술과 기술이 조우하는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글 현시원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달로 가는 정거장》 큐레이터)

| GATE 1. 환승시간 | | |
|-------------------------------------|--|--------------------------------|
| 작가/작품명 | 작품 정보 | 비고 |
| 사일로랩 〈시유(時有)〉 |  실타래, 나무, 모터, LED, 301x762x377cm, 2023 | |
| 허먼 콜겐 〈박테리움〉 (캐나다) |  단채널 비디오, 2채널 사운드, LED 패널, 컬러, 오디오 시스템, 300x300x300cm, 20분, 2021 ©울산시립미술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
| 서수진&카를로 코린스키 〈stormchaser ii〉 |  알루미늄, 나무, 팬, 가습기, 워터펌프, xy레일, 모터, 2채널 사운드, 300x150x150cm, 10분, 2023 | '23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 |
| 백남준 〈칭기즈 칸의 복권〉 |  CRT TV 모니터 1대, 철제 TV 케이스 10대, 네온관, 자전거, 잠수 헬멧, 주유기, 플라스틱관, 망토, 밧줄,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음, LD, 217x110x211cm, 1993 ©백남준아트센터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
| 류필립 〈천둥 동시성〉 |  금속판, 모터, 공명 및 우퍼 스피커, 콘택트 마이크, LED 조명, 각 220x100x100cm, 2023 | '23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 |
| 루이-필립 룡도 〈감시〉 (캐나다) |  인터랙티브 설치, TV 모니터, 카메라, 알루미늄, 아크릴, 전기, 컴퓨터, 210x120x20cm, 2023 | 해외협력기관 '일렉트라(ELEKTRA) 추천 |
| 백남준 〈시스틴 채플〉 |  비디오 설치, 4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프로젝터 40여 대, 비디오 프로세서 2대), 비계구조물, 가변크기, 1993 ©울산시립미술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
| 룸톤 〈Inside Dream〉 |  VR, 가변크기, 4분, 2023 | '23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 |
| 추미림 〈Vista〉 |  루프 비디오 설치, 75인치 TV 4대, 컬러, 사운드, 투명/거울 아크릴 조각, 가변크기, 5분, 2023 | |

| | | | |
|--|---|---|------------------------|
| 박소영 〈거북과 우주뱀〉 |  | 혼합매체, 가변크기, 2023 아트센터 나비 | 아트센터 나비 추천 |
| 김치앤칩스 〈읽지 않는 문자〉 |  | 유리렌즈, 머신러닝, 컴퓨터드 패턴 프린트, LEDs, 각 100×100×20cm, 2023 | '23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 |
| 백남준 〈토끼와 달〉 | | TV 수상기 박스에 도자기, 토끼 모양 도자, 63.6×55.7×52.5cm, 1988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 GATE 2. 우리, 여행자들 | | | |
| 올리 소렌슨 〈인류세의 파노라마〉 (캐나다) |  | 5채널 비디오 설치, 10분, 2023 | 해외협력기관 'ELEKTRA' 추천 |
| 트리스탄 술츠 〈스킨 3.0〉 (독일) |  |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크기, 2022 | 해외협력기관 'ZKM' 소장 |
| 페 랑 〈빈 공간을 비추는 램프〉 (스위스) |  | 아날로그 라이트 프로젝터, 사운드 시스템, 가변크기, 2023 | 해외협력기관 'HEK' 추천 |
| 알렉스 베르하스트 〈이루지 못한 미래의 아카이브〉 (벨기에) |  | 인터랙티브 60채널 루프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폐쇄회로에 HTML, 펠트에 실크스크린 프린트, 가변크기, 2022 | |
| 장지연 〈Uncanny Nature〉 |  | 단채널 프로젝션 맵핑, 다채널 비디오 설치, 4분 30초, 2023 | '23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 |
| GATE 3. 내일 도착 | | | |
| 미셸 브레 & 에드몽 쿠쇼 〈민들레〉 (프랑스) |  |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크기, 1990 | 해외협력기관 'ZKM' 소장 |

| | | | |
|------------------------------------|---|---|---|
| <p>류필립 〈극대 극소 정규화〉</p> |  | <p>3채널 비디오, 컬러, 4채널 사운드, 양자난수생성기,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우주선 검출기, 가변크기, 2023</p> | <p>'23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p> |
| <p>임형섭 〈Beyond the beyond〉</p> |  | <p>2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4채널 사운드, 5분 30초, 기메, 가변크기, 2023</p> | |
| <p>장윤영 〈Future Frogscapes〉</p> |  | <p>3채널 루프 비디오 설치, 컬러, 1분, 가변크기, 2023</p> | <p>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추천/ 기획자: 김소진</p> |
| <p>김호빈 〈Yellow Peril〉</p> |  | <p>2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6분 52초, 가변크기, 2023</p> | |
| <p>상희 〈원룸바벨〉</p> |  | <p>인터랙티브 VR, 15분, 2022-2023</p> | <p>'22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p> |